

이재명·이낙연, 경고에도 백제 공방 '갈 때까지 간다'

이재명측 "본인들이 마이너스, 우리는 안 굽힐 생각"

이낙연측 "뺄 다 때려놓고 하지 말자 얘기랑 똑같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간 이른바 '백제 발언' 공방이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재명 캠프는 이 전 대표의 악의적 공세를 비판했다.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 출연해 "그 캠프의 대변인이나 후보나 모든 사람들이 언론인 출신이 많은데 그렇게 편향해서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왜곡"이라며 "이 지사의 선의를 악의로 보는 전형적인 과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 지사의 백제 발언에 대해선 "한마디로 이낙연 (전) 대표가 잘 되는 것이 호남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진심의 말로 잘 되길 기원했던 말의 일부분을 떼내서 지역주의의 조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편협한 왜곡"이라고 거듭 주장

했다.

확장성을 언급한 것이 결국 '호남 불가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확장력 근거를 지역으로 둔 것이 아니라 실력과 능력, 그 다음에 청렴, 그리고 위기대처능력 능력으로 분명하게 발언했다"며 "지역주의를 근거로 그 사람이 확장력이 있느냐 없느냐 발언한 적은 전혀 없다. 전형적인 건강부 회고 왜곡"이라고 했다.

이낙연 캠프 측도 이 지사의 지역주의 부추기를 비난했다.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은연중에 지역주의에 기초한 선거전략을 펴는 데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이번 인터뷰에서 강하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사의 '백제' 발언 인터뷰에 대해서는 "인터뷰 뒷부분에 '상황이 달라졌다. 지역적, 전국적 확장력

은 저에게 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출신이) 특정 지역이니까 (확장이) 힘들다는 논리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것은 인터뷰를 읽은 분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 지사 본인의 본인이 왜곡했다면 표현을 잘못하신 것"이라며 "저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할 분들은 지역주의에 기초한 대선전략이나 선거캠페인 자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28일 당 지도부가 경선 후보간 네거티브 자체를 위해 마련한 워킹 협약식 개최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이 지사 측은 의도적인 사실왜곡, 조작, 명백한 흑색선전에 대해 당이 해당 캠프나 인사를 제재한다는 내용이 후보간 협약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경기도 공무원 선거개입, 영남 여차별, 탄핵 반대, 백제 발언 등에 대한 사실 검증을 위한 '대리인 1대1토론'을 요구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각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을 불러 네거티브 공방을 멈추지 않으면 제재하겠다고 엄중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두 후보 캠프는 서로 불쾌감을 감추지 않는 모양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뉴시스에 "우리는 대답을 해줬는데 저쪽에서 지역주의 감정을 건드렸다"면서 "본인들

이 마이너스다. 저쪽 네거티브가 잘 안 먹히는 걸로 보인다. 만약 저쪽이 끝까지 가자고 하면 우린 안 굽힐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뉴시스에 "이재명 캠프는 우리가 지역주의를 주장

했다고 주장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며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다. 네거티브 하지 말자는데 뺄 다 때려놓고 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이낙연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27일 오전 광주 서구 민주당 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지역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1년 만에 남북 관계 반전...통일부 역할론 주목



이인영 SNS에 "이제 시작" '소통 창구 복원' 현실화

"이제 시작이다.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등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계시물이 올랐다.

이 장관은 지난해 7월27일 취임했다. 그는 남북 관계 악조건 속에서 취임, 작은 교역 구상을 제시하고 다수 계기에 인도 협력과 소통 재개를 호소하는 등 행보를 보였다.

또 국제사회와 소통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북한 무반응 등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하다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취임 1년 만인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되면서 분위기가 전환 기대가 커졌다. 이번 조치로 통일부 차원 소통 창구는

물론 동·서해 군 통신연락선 등 창구가 다시 열렸다.

우선 통일부 차원 남북 연락대표 사이 첫 통화는 성사됐다. 해당 통화에서는 지난해 6월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매일 2회 정기통화를 재개하자는 합의 등이 이뤄졌다.

소통 창구 복원은 이 장관도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했던 사안이다. 앞서 그는 "당국 간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등 언급을 했다.

통일부는 다시 열린 소통 창구를 통해 다양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 열린 채널을 통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과정에서 통일부 역할도 관심을 받는다. 이 장관은 다수 계기에 '하반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분개도', '하반기 평화 노력들의 결실' 등을 거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이산가족, 회담·회의 등을 위한 비대면 접촉 환경을 준비하는 등 대화 재개 준비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인도적 협력 재개 협의 등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일부 측은 "인도적 협력은 정치, 군사, 안보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 입장을 밝혀 왔다. 최근에는 남북 협력 관련 단체, 기업 등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협력 사안으로는 코로나19 방역 등 보건 의료 분야 협력 등이 꼽힌다. 이어 식량, 비료 등 민생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방향으로 남북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통일부 구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지속적인 관계 복원, 신뢰 회복 등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여러 현안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합의한 사항 등을 포함해 시급한 의제부터 풀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초읽기' "늦지 않게 행로 결정해 나갈 것"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문제와 관련 "아직 입당할지 안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늦지 않게 행로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27일 오후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과 가진 오찬자리에서 "국민이나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오래 기다리시지 않고 예측 가능성을 가지도록 결론을 내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당한다고 해서 외연 확장을 안 하는 게 아니다"며 "상식의 복원과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에 보수, 진보, 중도를 넘어 하나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캠프에 다수 참여한 것과 관련해 "본격적인 정치행로를 잡고

가는 것을 국민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정치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영입해 조언을 듣고 캠프를 꾸려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최근 많은 분을 모셨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재개 요구를 한 이유에 대해 "국민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주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드루킹 사건의 광범위한 공모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후원금 계좌를 연 지 하루 만에 한도액 25억원을 다 채운 것에 대해 "상식의 복원, 나라 정상화를 열망하는 분들의 뜨거운 열망이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